

## 두경부 종양환자에서 발생한 경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내 중재적 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sup>1)</sup> 영상진단의학과교실,<sup>2)</sup>  
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sup>3)</sup>

노종렬<sup>1)</sup> · 서대철<sup>2)</sup> · 김미라<sup>3)</sup> · 이정현<sup>2)</sup> · 최진우<sup>2)</sup> · 최승호<sup>1)</sup> · 남순열<sup>1)</sup> · 김상윤<sup>1)</sup>

**목 적** : 경동맥 파열은 진행된 두경부 종양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에 대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 혈관내 중재적 치료(endovascular treatment)에 대하여 임상적 치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 경동맥 파열을 동반한 두경부 종양환자 중 혈관내 중재적 치료를 시행 받은 1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 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파열된 경동맥에 대하여 영구적 색전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치료 후 합병증, 예후, 생존기간을 통하여 임상적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모든 환자는 두경부 종양의 원발 부위와 경부 림프절 전이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8예에서는 직접적인 종양의 경동맥 침윤으로, 7예에서는 인두피부누공으로 인하여, 1예에서는 후두 연골의 방사선 괴사에 의하여 경동맥 파열이 발생하였다. 내경동맥에

비하여 외경동맥과 총경동맥에서 보다 흔하게 경동맥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11예에서는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5예에서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7예에서 경동맥 파열이 재발하였으며, 재발한 경우에도 혈관내 중재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후 3예에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4예에서 창상 감염이 동반되어 색전술에 이용한 물질과 스텐트가 노출되었다. 경동맥 파열이 발생한 대부분의 환자는 종양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경동맥 파열 이후 평균 생존 기간은 5개월이다.

**결 론** : 색전술이나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혈관내 중재적 치료는 경동맥 파열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로서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두경부 종양이 진행된 경우, 창상 감염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